

광주·전남 대학-지자체-기관 ‘맞손’

광주·전남지역 대학과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들이 대학의 보유자원을 공동활용해 상생발전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주도하게 될 지역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 협의체가 출범했다.

13일 전남대에 따르면 광주·전남 10개 대학, 3개 지자체, 7개 공공 기관 등 20개 기관·단체는 이날 전남대에서 국립대학 육성사업 네트워크 협의체 워크숍을 갖고 협의체 공식 출범과 더불어 향후 운영 방향

지역 최대 규모 네트워크 협의체 출범

보유자원 공유·상생·문제 해결 주도

등에 대해 협의했다.

국립대는 전남대·광주교대·목포대·목포해양대·순천대, 시립대는 광주대·동신대·조선대·초당대·호남대, 자치단체는 광주시·전남도·여수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거래소와 한전KDN을 비롯, 한국농 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품질식품 기획평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다.

협의체는 올 상반기 중 보유자원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사업 5기 현장 만남의 날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운영된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사업 5기 현장 만남의 날’ 행사를 찾아 공공기관 및 일 경험 부스를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와 구직 청년들을 격려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디딤돌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15일까지 열린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운영된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사업 5기 현장 만남의 날’ 행사를 찾아 공공기관 및 일 경험 부스를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와 구직 청년들을 격려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디딤돌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15일까지 열린다.

광주 마을분쟁센터 화해성사율 85%

광주시는 이웃 간 갈등을 주민 스스로로 해결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가 지난해 말까지 접수한 816 건의 분쟁 중 692건을 해결해 85%의 화해성사율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된 분쟁은 증간소음·흡연 30건, 생활누수 93건, 애완견 관련 75건, 주차문제 42건, 기타 생활악취 및 건축공사 피해 등 305 건이다.

시는 사소한 갈등이 법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광주지법원, 법률전문가 단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마을분쟁해결센터와 5개 지자체에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이웃 간 분쟁이 발생돼 센터나 마을 소통방에 민

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갈등 상대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상호 간 대화 여부를 확인한다.

대화 의사가 있는 경우 주민화해 지원인으로 구성된 주민화해지원위원회에서 갈등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화해 성사가 어려운 분쟁은 센터 법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화해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센터와 소통방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마을 아파트·청소년·시니어 그룹을 대상으로 기본, 심화, 전문가 과정의 주민화해지원인 양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월 현재까지 35명이 수료했다.

서은홍 기자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요건 강화

공공기관승용차 2부제·도로청소·공사시간 조정 등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공공·행정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도로청소 강화 등을 통해 단기간 내 대기질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자체의 지역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발령 요건으로 시행해 왔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동일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중 건설업, 공공기관 운영 대기배출사업장,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등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시행으로 전환된다.

시는 의무대상 사업장과 건설업 공사장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연락망을 가동해 발령 내용이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대기배출 사업장 6곳(공공 3곳·민간 3곳)과 공사장 94곳(공공 33곳·민간 61곳)이 운영중이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으로 민간부문 자동차 운행제한 의무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부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CCTV 등 주요 도로망 단속시스템 기반이 구축되는 시점부터 민간부문의 자동차 운행제한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신봉우 기자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석면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창업상담>>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 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동구, 청년활동가와 일할 마을일터 찾습니다

광주 동구가 청년일자리 ‘이웃이 있는 마을일터’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 18개소를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농·어업·교육·환경·인전·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로, 광고일 현재 등록에 소재한 사업장(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사업장이 되면 연말까지 사업기간 동안 참여 청년의 인건비 90%를 지원받는다. 단 인건비의 10% 및 기업분 4대 보험료는 사업장이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구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22일까지 구비서류를 청년체육과(☎062-608-2242)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광주 서구가 201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자자를 모집한다. 20일까지 모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비우치)을 제공,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기관을 선택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제공 분야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이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7개 분야, 해피실버 문화여가서비스 등 노인·장애인 관련 서비스 6개 분야,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가족·신체 관련 서비스 4개 분야 등 총 17개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등 소득관련서류, 사업별 요구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지 등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남구, 자녀양육 기본원리·부모역할 함께 배운다

광주 남구는 이동과 청소년의 윤리를 성장을 돋우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텔레비 공강강좌를 실시한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공강강좌의 타이틀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으로, 오는 18일 오후 3시 남구청 5층 보건교육실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2월 25일과 3월 4일에 각각 진행된다.

총 3차례에 걸쳐 연달아 진행하는 공강강좌는 강의별로 애착과 훈육, 자립의 각기 다른 주제를 담고 있으며,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하란 전문의가 연단에 올라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기본 원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나서

광주 북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과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에 나선다.

광주 북구는 ‘올해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1억 1500만원 증액 된 8억 3300만원으로 정하고 2019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를 본격 추진한다.”라고 13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구매목표액인 7억 1800만원을 훌쩍 넘어서 10억 7100만원의 구매 실적을 올려 목표 대비 149%로 초과 달성을 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는 물품이나 용역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광산구, 클린광산 녹색감시단 38명 위촉

13일 광주 광산구가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시민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장소를 알리는 등 깨끗한 도시를 위해 활동할 ‘클린광산 녹색감시단’ 38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쓰레기 처리과정, 배출실태, 분리배출요령, 불법투기·소각행위 대처요령 등을 교육받은 단원들은 3월부터 구 담당 공무원과 함께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등 현장을 방문해 교육과 활동을 병행해 예정.

광산구 관계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와 매력·활력·품격 넘치는 광산 조성을 위해 마을과 도시환경 개선에 많은 시민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